

보도 일시	2022. 2. 25.(금) 11:00	배포 일시	2022. 2. 25.(금) 11: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책임자	과장 배양희 (044-203-2751)
		담당자	사무관 김용수 (044-203-2748)

국립현대미술관장에 윤범모 씨 재임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인사혁신처 공모를 통해 2022년 2월 25일(금) 자로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에 윤범모(尹範模) 씨를 재임명하고 오늘 오후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임명은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의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임기제 고위공무원인 관장의 임기는 3년('22. 2. 25.~'25. 2. 24.)이다.

윤범모 씨는 198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미술평단에 등단한 이후 30여 년간 미술비평가로 활동했으며, 기자, 전시기획자(큐레이터), 교수, 비엔날레 총감독 등 미술계에서 한국미술의 발전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번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임기 중에는 미술계 담론을 주도하고, 미술 한류 확산을 위한 국내외 교류 전시 기획, 협업 사업 등을 추진했다. 또한, 체계적으로 한국미술사를 연구하기 위해 국문과 영문으로 된 한국 근현대미술사를 발간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비대면 전시 개최, 온라인좌담회 개최 등 국립현대미술관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윤범모 관장이 한국미술 전반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미술의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최근 여러 문제와 현안 해결이 필요한 국립현대미술관의 상황을 인식해 책임 있게 조직을 이끌어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임명장 수여 사진 별도 배포 예정

붙임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약력

	성명 (한자)	윤범모(尹範模)
	생년월일	1951년 7월 5일(만 71세)
	성 별	남
주요 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국대학교 미술학과 학사(1977) ○ 동국대학교 사학과 석사(1979) ○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2007) 	
주요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前)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 전(前)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좌교수 ○ 전(前) 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 ○ 전(前) 경주문화엑스포 총감독 ○ 전(前)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 ○ 전(前) 광주비엔날레 집행위원 및 책임큐레이터 ○ 전(前) 호암갤러리 큐레이터 ○ 전(前) 중앙일보 기자 	